

Daniel J. Treier 박사, 잠언, 세션 1, 두 가지 방법

© 2024 다니엘 트라이어(Daniel Trei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잠언에 대한 강의에서 Dr. Daniel J. Treier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세션, 잠언 1-9장, 두 가지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댄 트리어입니다. 저는 휘튼 대학과 그 대학원의 노들러 신학교수입니다. 잠언에 관한 일련의 강의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곧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제 제목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잠언 읽기'입니다.

나는 2011년에 브라조스 성경 주석이라는 시리즈를 위해 잠언과 전도서에 출판했던 이 책의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베이커 출판 그룹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많은 신실한 구약학자들은 내가 조직신학자로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기술적으로 유능하고 포괄적인 잠언의 성경신학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Tremper Longman과 Bruce Waltke와 같은 사람들의 훌륭한 주석과 히브리어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기술적 능력이 나를 훨씬 능가하는 많은 다른 복음주의 구약 학자들의 주석적인 도움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강의에서 나는 그들이 했던 복잡한 작업을 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신학자로서 나는 실제로 그들의 작업을 특정 초점으로 종합하고 보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 성경의 전체 정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비추어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잠언을 단순히 실용적인 지혜를 모아 놓은 덩어리로 취급해야 하며, 때로는 다양한 문화에서 차용하거나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읽은 내용을 도덕적 형성, 즉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측면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면 잠언은 궁극적으로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새로워지고 있는 인간 공동체인 기독교 교회 내에서 우리의 영적 형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습니까? 잠언을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다루면 여전히 그 원래 의미를 존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그것을 탐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질문에 대한 네 부분으로 구성된 답변을 제시할 것입니다. 첫째,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긴 서론은 두 가지 방법, 즉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되는 결정, 큰 그림과 결정, 작은 그림의 드라마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번 강의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의 짧은 잠언은 덕 있는 성품을 묘사하는데, 이는 우리가 기독교 전통의 기본적이고 신학적인 덕목으로 요약할 수 있는 묘사입니다. 셋째, 대조적으로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의 짧은 잠언 역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극복하는 중대한 악덕, 이른바 일곱 가지 대죄의 위험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잠언 30장과 31장의 마지막 단어는 이 책의 부모의 교육학과 하나님의 교육학을 연결하여 언약 백성의 지혜 교육을 촉진합니다.

이 교육학적 초점은 우리가 네 번째 강의에서 공부할 추가 주제를 강조합니다. 잠언은 듣기와 말하기를 우리 성격의 중요한 표현이자 성격의 건강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로 우선시합니다. 이제 잠언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 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롤랜드 머피(Roland Murphy)는 잠언 해석의 역사가 그가 선한 태만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잠언은 잠언의 집행자에 불과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도덕적 지도.

결국, 필립 멜란히톤(Philip Melancthon)의 16세기 다양한 책을 제외하고는 고전 주석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현대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윤리와 관련하여 토라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에 대한 현대 주석조차도 최근 수십 년까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무시에 대한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처음부터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소위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디다케는 2세기부터, 어쩌면 1세기부터 교회에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이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삶의 길과 죽음의 길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두 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디다케의 후속 지침은 성격 중심적이며 두 가지 방식에 관한 잠언과 더 넓은 구약의 패턴에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축복과 저주 구조도 마찬가지로 이분법적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장, 14장에서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과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대조하시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운동을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다케를 연결하는 갈라디아서 5장, 17장부터 25장은 영과 육의 이중성을 제시합니다. 육체는 몸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악하고, 땅에 얽매이고, 죄 많은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의 이원성 속에서 우리는 미덕과 악덕의 목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동기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파멸적인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다케가 이러한 성경적 주제를 포착한 후, 몇 세기 후에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은 이 성경적 두 가지 방식에 대한 폭넓은 기독교적 유사점의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합니다. 보에티우스는 또한 그것이 제기하는 신학적, 철학적 질문 중 일부를 숙고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개념적 교리가 궁극적으로 발전하거나 자연 신학에 대한 문제가 있는 논쟁이 우리를 오도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창조된 자연의 신학이 필요합니다. 잠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구속의 은혜를 항상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창조된 자연과 이교 문화에 현명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성경적 권위를 발견합니다.

잠언에서 배우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창조의 선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문화적 참여와 성경적 복음을 통합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도덕적인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때때로 무작정 잠언을 양육 요령이나 신이 보장하는 자조의 원천으로 삼는 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잠언의 신학적 틀이 이렇게 왜곡되거나 무시될 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축복하시거나, 아니면 크리스천 스미스가 묘사한 도덕적 치료적 이신론의 하나님이 우리 문화, 심지어 복음주의 문화에 만연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축복하는 이 도덕적 치료적 이신론의 신은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잠언을 그런 식으로 읽을 때 우리는 그 내용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지혜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본문 자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도덕적인 초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실천적인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적인 개인 보장을 제공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공동체적 성격을 형성하는 두 가지 생활 방식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장 18절까지의 구조 자체가 지혜를 향한 길로 나아가도록 촉진합니다. 잠언 1-9장은 부모의 장황한 연설과 의인화된 지혜의 연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의 나머지 부분은 더 짧고 더 친숙하며 일반적으로 두 줄로 된 다양한 잠언을 수집합니다.

잠언 1-9장의 연설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막간에는 1장 20-33절과 8장 1-36절에서 개인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혜가 전하는 연설 사이에, 부모가 내 자녀에게 하는 강의는 그 문구가 2-1, 3-1, 3-11, 3-21, 다시 4-1, 10절에 나옵니다. -20, 5장 1절과 7절, 6장 1절, 3절, 20절, 7장 1절과 24절, 그리고 다시 8장 32절.

연상의 모든 형태가 큰 그림의 구조적 구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반드시 동일한 힘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 장 구분을 사용하여 잠언 2-9장을 주제별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광범위한 패턴을 설정합니다. . 잠언 2, 3, 4, 6장은 지혜를 찬양하는 부모의 연설이며, 그 초점은 2장에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3장에서 그녀를 붙들고, 4장에서 이 부모의 길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고, 잠언 5장과 7장은 그 사이에 어리석음에 대한 부모의 경고를 삽입합니다. 4장 끝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지켜야 할 신호적인 위험은 간음(5장)입니다. 결혼했든 안 했든 젊은이들은 지혜로운 여인 대신 유혹적인 음성(7장)을 들음으로써 심각한 영적 위험에 직면합니다. 잠언 8장에서는 말합니다. 잠언 9장은 1-6절의 지혜 부인과 13-18절의 어리석은 여인의 반대 초대에 대한 요약 버전을 제공하여 7-12절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한마음에 대한 원칙을 구성합니다. .

물론 내가 1-9장에서 지혜를 추구하면서 제안하고 있는 이 극적인 움직임은 많은 고속도로와 샛길이 있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각 장에 나오는 수많은 하위 플롯의 우여곡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즉 삶으로 이어지는 길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기본 주제에 대한 변형입니다. 프롤로그까지.

잠언 1-1장은 이어지는 내용을 솔로몬 왕과 연관시킵니다. 확실히 각 속담의 저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담의 창조와 수집의 중심지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은 이 잠언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비스듬하게 연결합니다.

그 연관성은 야훼에 대한 경외심, 즉 어떤 신이나 가장 완전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추구하는 길로 들어가기 위한 좁은 문으로서 있는 몇 구절에서 더욱 명백해집니다. 지혜의. 1장 7절. 초대 교회의 히폴리투스가 지적한 것처럼 솔로몬의 이름은 그를 평화와 연관시킵니다. 단지 전쟁을 피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번영을 누린다는 총체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 샬롬에 대한 지혜는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통해 중재되며,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의 계보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1장 2~6절에 나타나며, 반복되는 지혜의 말을 겹겹이 쌓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 교훈을 전달한다. 첫째, 지혜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교훈에서 얻은 통찰력은 지혜로운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정의를 촉진합니다(3절). 잠언은 배우거나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게 합니다(4절). 잠언 1-4절은 일상 생활을 급하게 해석하는 데에도 지혜를 더 밀어 넣습니다. 그 영리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구약 전체에 걸쳐 한결같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의 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잠언은 때때로 세상의

방식을 항상 승인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응답을 수행하거나 처방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지혜의 해석학적 기능은 5절과 6절에서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지혜는 그 자체로 세워집니다. 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그 의미를 듣고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초가 됩니다. 지혜의 부는 무궁무진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맥락을 다룰 만큼 충분히 심오한 이 단어를 이해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적 지혜는 민주적이며, 그들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지혜의 보편적인 초대는 처음에는 1장 1절에 명시적인 수신자가 없다는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다음으로 지혜가 축적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만큼 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단순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철학자들이 덕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 즉 덕 있는 사람만이 덕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고민하지 않지만, 덕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다음 단계에 대한 지혜는, 심지어 생명에 이르는 길의 첫 번째 단계라도, 사람이 단순함에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길로 너무 멀리 걸어가서 완전히 되돌아가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잠언 1장 7절은 지혜가 신학적인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Yahweh)인데, 이를 통해 창조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야훼의 계시가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1장 7절에서는 둘 중 하나를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절하게 반응하거나, 부적절하게 어리석게 반응합니다. 바보들은 교만하며, 뿌리는 아니더라도 이른바 대죄의 뿌리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교만하고 징계를 멸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초기 지표는 비유를 나타낼 수도 있는 속담 마살의 개념과 관련된 신비의 아우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적인 가르침의 이중적 현실은 잠언과 평행을 이룹니다.

한편으로, 말씀의 구체적인 흠성은 가장 단순한 청중이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가르침을 일상 생활에 삽입합니다. 1페니를 아껴도 1페니를 벌 수 있다, 한 바늘을 꿰매면 아홉 개를 절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냥 해라 등의 현대 속담을 생각해보면 아마 당신은 그 속담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장보다는 일반화를 제공하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짧고 시적이며 구체적입니다. 적용되는 상황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현명하게 적용하려면 목차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비유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 12.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6장, 9장, 10장을 인용하셨습니다.

잠언과 비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의미가 여러 겹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우리 현대 문화에서 속담의 가장 큰 원천이 매디슨 애비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 형성에 관해 생각할 거리.

이제 여기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 먼 거리를 만드는 공포가 아닙니다. 대신에,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 구약의 믿음에 대한 동의어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창조주라는 최초의 인식을 강조합니다. 고대 신학자 베데(Bede)는 비굴한 두려움과 거룩한 두려움을 구별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한 최초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형벌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을 쫓아냅니다(요일 4:18). 그리하여 사랑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 안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8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므로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길의 근본적인 이중성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그것을 따르려는 의도가 거의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상해 보이지만; 이것은 때때로 사람들이 개봉하지도 않은 채 받는 선물입니다. 지혜의 신학적 차원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에 관련된 이중성은 비성경적인 이원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가지 길은 바로 참하느님이 한 분뿐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생명은 창조주 야훼의 주권에 복종합니다. 육체와 영혼, 아직은 아니지만 신자 공동체와 세상 모두가 창조주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이원론은 이러한 현실을 둘 중 하나가 우선권을 갖는 완전히 별개의 범주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이원론을 거부한다고 해서 정당한 구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꺼이 고백하는 자들과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자들을 구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나(요 3:16), 세상을 이대로 어둠 속에 숨기시지 않고(19-21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17절). 또는 또 다른 반이원론적 구절인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4절의 시작). 4절과 5절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4절과 5절). 인간의

마음은 더 이상 선하지 않고 이러한 선물을 우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재화를 창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육신과 마귀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이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그러므로 잠언의 두 가지 물질적 방식, 잠언 등의 자주 대조되는 형태는 잘못된 종류의 이원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권에 삶 전체를 복종시킴으로써 정확하게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넷째, 지혜의 사회적, 민주적, 신학적 차원의 결과가 이미 표면화되었습니다. 지혜는 진보적이다.

젊은이들이 길을 걸으면서 단순함을 극복하고 지혜가 성장함에 따라 교사는 기본적인 규율을 제공하는 것에서 보다 복잡한 식별력을 자극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목표는 전통적인 공식의 노예적인 반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지시 없이 진리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점점 더 배우는 성숙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성인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성장에는 초기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수많은 상담자가 필요하며, 계속해서 경청을 통해 학습해야 합니다. 이 진보적인 지혜의 요소는 다음 장들 전반에 걸쳐 극적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장의 8-19절에 이르면 악한 것을 듣지 말라는 주제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절들은 무엇보다도 교훈을 주제로 한 이전 구절들과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끝을 향해 이어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를 제공하는 두 명의 화자를 제시합니다. 화자는 부모(8절과 9절)이고, 죄인(10-19절)입니다.

죄인들은 탐욕을 위해 유혹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자기 파멸의 관점에서 극명하게 묘사되었으며, 16절에서는 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중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모 교육의 끝이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11절과 15절에서 피에 대한 언급을 극단적으로 간주하여 강도들이 지역 사회에서 특이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반면, 13절에서 집에 대한 언급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9절은 시야를 넓혀줍니다. 이득을 탐하는 모든 사람의 종말은 이러합니다.

강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침투하는 타락한 욕망의 극단적인 형태를 연출하고, 죄인들은 유혹적인 형태의 대안 공동체를 제시합니다(14절). 우리의 인간 관계를 고려할 때, 갱단에 대한 해독제는 우리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특정 독립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직접적인 명령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으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합니다.

듣는 것이 행동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쁜 친구는 좋은 성품을 부패시킵니다(고전 15:33). 긍정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많이 듣는 오늘날의 이미지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개인적이고 구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지혜는 권위와 사랑에 찬 관심을 통해 청소년의 의지를 다루며, 가능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성숙한 숙고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지혜의 제안을 들음. 성경적 가르침의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20절에서 시작하여 의인화된 지혜가 광장에서 외치는 새로운 차원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권유를 하기 시작하고 8장과 1절부터 확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이미 경멸을 받고 있음을 요약하여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은 욱기 28장과 다른 강조점을 취합니다. 욱기 28장은 지혜는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찾기도 어렵다고 강조하는 반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지만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눈에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따라서 지혜는 매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이는 지혜의 의인화가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둘째, 지혜는 개인적으로 활동적이다. 잠언 1장에서 지혜는

부르짖고, 생각과 말을 쏟아 붓겠다고 약속하고, 부르고, 거절을 경험하고, 따라서 웃고 조롱하고, 응답하지 않거나 자신을 바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지혜의 묘사가 한편으로는 부모, 잠언의 가르침, 어쩌면 하나님 자신과 정확히 어떻게 관련되는지,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것처럼 지혜의 의인화는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 활동을 반영하고 중재하는 지혜의 개인적 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지혜는 이미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 거절은 24절과 25절, 29절과 30절에서 사실로 취급됩니다.

이 언어의 구조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개인적인 거부, 심지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된 언약의 저주를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어리석은 젊은이들은 반드시 공동체 밖에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은 항상 고집의 유혹에 빠져 여정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다음 세대입니다. 잠언은 그 도덕적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관해 아주 현실적입니다.

잠언 2장에서 말하는 부분은 의인화된 지혜에서 부모로 다시 전환되지만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해를 구하십시오. 1장에서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경청과 계시를 받는 것을 강조한 반면, 2장은 계시를 받는 것에서 시작하여 전심으로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명령을 통해 적극적인 추구를 요구합니다. 잠언에서 명철, 그리고 여기서 테부나는 특히 2, 3, 5, 6, 9, 11절에 나오는 단어이지만, 더 일반적으로 잠언에서 묘사하는 명철, 지혜는 일차적으로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리스인들이 프로네시스(phronesis)라고 불렀던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체적인 세속적 상황에서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천적 이성입니다. 예를 들어 1절과 2절이 암시하는 반추와 주의, 4절에 대한 필사적인 추구, 7절의 저장, 10절의 내면화 등에는 여전히 관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씹어먹는 것, 이해,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의 목표는 이론적 숙달이 아니며, 현대 지식이 그토록 자주 추구하는 종류의 인간적 숙달도 아닙니다. 그리스인들이 테크네라고 불렀던 테크네는 그곳에서 기술이라는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들을 수 있습니다. 테크네는 인간이 우주를 통제하기 위해, 예측하고 창조하거나 형성함으로써 우주를 마스터하기 위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실용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지배력이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를 지키고 공동체의 정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물은 1장의 갱단의 약속과 대조되는 1절, 4절, 7절의 특권적인 비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도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께서 하신 지혜의 말씀이 요점을 전달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보화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에 대한 축복을 올바르게 베푸십니다.

잠언 2장의 하반부는 12절부터 15절까지 비뚤어진 기쁨으로 죽음의 길을 추구하는 많은 자들로부터의 지혜의 구원을 약속하며, 특히 16절부터 19절까지의 간음한 자들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며 이후의 주제를 예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원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오는 것과 같은 부모의 강의는 패턴, 즉 듣기 시작하는 호소, 그렇게 하려는 동기, 교훈의 내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택 여부에 따른 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결론을 따릅니다. 수업에서 명한 좋은 성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의 시작 호소는 1절부터 11절까지로 길며, 주요 교훈은 파멸적인 사람들에게서 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악의 길에서 구원받는 것(12절)과 간음하는 자에게서 구원받는 것(16절)입니다. 장의 구조 뭔가를 더 미묘하게 강조합니다. 2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글자 수와 같으며, 11-12절은 두 글자의 우세에 따라 장을 양분합니다.

하위 섹션의 평행한 길이를 고려하여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의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언약의 삶의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섭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스타일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본문은 언약의 언어, 계명, 초기의 의, 8절의 헤세드, 충성, 사랑의 친절, 그리고 13절의 버림과 같은 배도에 자주 사용되는 어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언약 관계에는 질서가 명시되어 있으며, 질서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2장의 강의 구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은 내용과 일치합니다. 잠언 3장과 그 다음 장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미 접하기 시작한 어휘와 주제를 실질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의 약간의 변화는 극적인 진전을 의미합니다. 3장에서 이 진행에는 지혜를 듣고 추구하기 시작한 이제 지혜를 붙잡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훈을 잊지 말라(1절). 충성과 진실이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라(3절). 항상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13절).

그녀는 그것을 붙잡는 이들에게 생명나무이다. 그를 붙드는 자들을 행복하다고 일컫는다(18절). 애야, 이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라.

건전한 지혜와 총명을 지키십시오(21절). 의심할 바 없이 이 권고는 아직 지혜에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지만,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첫 번째 호소에 있는 마지막 명령은 우리가 부르는 단순한 보복 신학이 잘못되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합니다.

선한 사람이 항상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권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나중에 의로운 고난에 대해 더 분명한 뉘앙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난이 닥치면 넘어지느니라.

이러한 불협화음의 순간에 직면할 때 지혜는 붙잡을 가치가 없다고 믿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이 항상 즉각적으로 선을 낳는 단순한 보복

신학을 지나치면, 지혜의 가치에 대한 일반화가 지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진실이 아닌 일종의 단순한 보장에 두지 않고 진실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 경험.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막간에는 지혜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되는 호소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결혼상대자처럼 지혜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18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에 관한 종류의 어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 8장을 예상하면서 지혜는 주님께서 우주를 안정되고 안전하게 창조하신 수단이라는 예비적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생명나무의 상징적 사용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부르는 것의 잠재적인 모호성을 확립합니다. 인간이 피조물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를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품지 않고 자기의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인간은 치명적인 멸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만이 우리가 그러한 형태의 우상 숭배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봉인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지혜는 애초에 우리에게 그토록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된 바로 인간 독립 선언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선물인 지혜는 우리를 향해 오셔서 그분의 초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우리가 응답할 때 받아들여지며, 우리의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일치시킵니다.

3장 21절에서 내 아이와 직접 대화를 재개하면 다음 소절이 소개되며 여기에 교훈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안전의 원천으로 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을 배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지혜는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에 비추어 우리가 돈과 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야 야고보서와 공명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주석에서 항목별로 언급하고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것 외에도 여기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잠언 3장 34절의 헬라어 번역에서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제임스 4.6.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 페이지가 거의 없다고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이 장의 결론인 잠언 3장은 왜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지혜를 찾고 지혜를 추구하는 데서 참된 삶의 길을 찾는지에 관해 적절한 요약を提供합니다. 잠언 3장과 잠언 전체에 묘사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인간을 압제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인간이 변성하기를 바라십니다. 잠언 3장 3절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바위 틈에 숨어 있었을 때 받은 신성한 자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결정짓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사 모든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의와 은혜를 서로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실제로 정의와 자비가 분리되는 문화적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잠언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은혜로운 목적을 위해 표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물 안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은 단지 지혜의 제안을 처음 듣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롬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지혜를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다음 강의인 잠언 4장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직접 주소는 1-9절, 10-19절, 20-27절의 세 단위로 구별됩니다. 첫 번째 단위는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첫 번째 단원인 1-9절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의 교훈을 인용하면서 가족의 지혜 전통을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에 반영된 사회는 가부장적이지만, 3절에 보면 성경 본문에서도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두 번째 단원인 10-19절은 아들이 이제 고수해야 할 현재 아버지의 충실한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원인 20-27절은 신체적 위치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신체 부위와 감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행동이 흘러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23절). 우리는 특히 눈과 입과 귀를 통해, 즉 보고, 말하고, 듣는 것으로 마음을 지킵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마음 보호의 중요한 차원은 성적인 충성심에 관한 것이며, 잠언 5장의 명시적인 주제는 언약 관계를 보다 일반적으로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1절과 2절의 지혜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들으라는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3-6절에서는 패역함이 치명적이라는 근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7절의 직접적인 강조는 8절, 9-14절에서 비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음녀를 피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권고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권고는 15-20절에서 결혼 생활 내에서의 성적 기쁨의 긍정적인 대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구절에는 위험한 결과에 관한 신학적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주제는 성적 충실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연설의 주제도 두드러집니다. 젊은이의 말은 그의 상황을 반영하며, 그가 듣는 내용은 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곳에서 성서의 모범은 우리가 듣는 즉각적인 만족을 거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히브리서 3장 1~6절)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아들로써 탁월했던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견디는 쪽을 택했습니다(히 11~25장). 아마도 더 분명하게 말하면, 요셉은 창세기 39장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 보디발의 아내를 고상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 5장이 요구하는 것을 구현하는 종류의 모델입니다. 대조적으로 잠언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5장은 간음에 대해 경고할 뿐만 아니라 결혼의 성관계를 신이 창조한 선물로 솔직하게 찬양하는 육체적인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충실성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충실함의 전형이 되는 추가적인 의미 층을 위한 추진력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결혼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및 교회와의 상호 작용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성적 충실성을 보호하는 것과 영적 충실성을 추구하는 것 사이의 비유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잠언 6장 처음 다섯 절은 이웃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서지 말라고 잠언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3b-5절에서는 그러한 서약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서둘러 떠나라는 일련의 권고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구절에서 아버지를 걱정하게 하는 게으름의 특별한 사례는 6-11절에서 게으름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권고로 이어집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개미의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된 질서는 창조주로부터 오는 도덕적 지식의 원천입니다.

여기 있는 아들은 아직 게으른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부모의 경고는 꼭 필요한 예방 조치입니다. 게으른 자는 6장 12-19절처럼 악인도 아니고, 20-35절처럼 음녀나 그 희생자도 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보안을 준비하지 못하면 더 광범위하게는 가족이나 지역 사회 내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초대교회에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 자주 인용되었는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명령의 맥락은 한가한 손이 공동체에서 마귀의 놀이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언뜻 보기에 이웃에 대한 보증 문제는 간음과 같은 항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은 모든 형태의 대출을 단호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채와 이자의 정교한 침입을 중심으로 구축된 현대 경제는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딜레마를 더 야기합니다. 그러나 얽힘을 피하는 것에 대한 더 큰 주제는 이러한 다양한 항목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 장의 16-19절에 나오는 6, 7 패턴은 악당의 가장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며, 잠언 x, x에 1을 더한 이러한 종류의 목록에 대한 더 넓은 패턴을 따릅니다. 이러한 x, x 플러스 1 종류의 목록은 마지막 항목인 플러스 1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기 16-19절에서 잠언은 궁극적으로 가족 연합의 붕괴와 그에 따른 언약의 유대에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가족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비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잠언 6장 16-19절도 팔복을 반대하는 것과 같이 읽히나니 처음에는 교만한 눈으로 심령의 가난함과

대조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은 온유와 자비와 대조되며 마음은 악한 꾀를 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청결함,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말하는 증인과,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것과는 반대로 가정에 불화를 심는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두드러지는 치찰음은 잠언 목록 전체에 걸쳐 싹싹거리는 효과를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싶지 않은 특성입니다. 그들은 뱀처럼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 죄 목록에서 교만이 먼저 나오는데, Waltke가 지적했듯이 그 목록이 머리에서 발끝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길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얽매임이나 덫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언급하는 내용은 20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6장 1절과 달리 순종을 유지하라는 표준적인 프레임 권고로 부모의 가르침이 제공할 보호 약속으로 이어지는데, 그 보호의 전형은 어리석은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7장은 음녀에 대해 경고하는 또 다른 강의로 이어지며,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영적인 의미를 지적합니다.

첫째, 주변 맥락은 이 강의의 절정적 위치뿐만 아니라 여인의 지혜에 관한 잠언 8장과의 병치도 포함합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에 관한 잠언 9장과 잠언 9장의 의인화는 7장의 음녀가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잠언 7장의 확장된 서론은 8장에 있는 여인의 지혜와 연결되어 전통적인 가르침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합니다. 7장 4절의 당신은 내 자매이기 때문에 단순한 자매애가 아닌 결혼의 친밀함을 전달합니다.

샘플 평행을 위해 아가서 4.9를 고려하십시오. 내 누이, 내 신부여, 당신은 내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더 큰 영적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유혹 시나리오의 여러 요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현명한 부모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볼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6절과 7절. 넷째, 종교가 이 시나리오에 들어갑니다.

특히 7장과 14절의 용어는 Waltke가 제안한 것처럼 식사와 관련된 가나안 관습의 친교 희생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어떤 언어에서는 27절에서 죽음의 방인 이중의 의미를 암시합니다. 잠언의 다른 곳에서는 몸이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언급합니다.

26절에서 월트케가 말하는 이미지는 바빌로니아의 이슈타르(Ishtar)와 수메르의 이난나(Inanna)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둘 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라는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육체적으로 굴복하지 말라는 경고가 실제로 지속되고 있지만, 잠언은 이미 그로 인한 치명적인 재정적, 사회적, 심지어 신체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외국 종교와 대안적 지혜의 매혹적인 잠재력에 대해 더욱 경고하여 우리가 그들의 관능적인 매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일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어리석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종교 안팎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다 일반화된 영성을 선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특수성, 특히 구약성서의 그의 소명 형성을 경시하는 자유주의적이거나 진보적인 형태의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보다 자유주의적인 형태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성 윤리에 대한 성경의 전통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도 이제 이 분야에서 현대 문화와 상당한 타협을 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한 경향은 잠언 7장에 나오는 종교-성 역학과 일치합니다. 결혼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문자 그대로나 은유적으로나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스와 마찬가지로 영성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의 원초적인 필요와 갈망을 충족시킵니다. 우리 몸을 자기 초월 행위에 참여시킴으로써 성과 영성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경험까지도 우상으로 대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혹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7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 관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잠언 8장에서 Lady Wisdom은 Dame Folly처럼 매우 공개적으로 외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애교가 많지만 Dame Folly의 단기적인 공격성을 연습하기보다는 구혼자의 장기적인 매력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녀의 매력은 단순히 정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말의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더 심오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6절부터 9절까지가 강조하는 것처럼, 사악하고 기만적인 말씀이 아니라 공의롭고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장 좋은 금속이나 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10절과 11절).

다음 10절(12절부터 21절)에서는 왕권과의 연관성을 포함하여 지혜의 가치를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혜는 통치자가 올바르게 통치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도자들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8장의 끝 부분인 32절부터 36절까지는 이 교훈에 대해 기대되는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은 자신의 길을 지키기 위해 주의 깊게, 끊임없이 듣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제공합니다. 이 축복은 생명에 있으며, 육체적 존재보다 더 심오하게는 주님의 은총에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좋아하는데, 이는 암시적으로 육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잠언 7장의 끝부분과 평행을 이룬 점에 주목하십시오. 두 장은 지혜의 여인을 배척한 결과로 극명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잠언 8장의 정점에서 22절부터 31절은 지혜의 여인을 현재뿐만 아니라 가장 먼 과거, 우주의 창조, 그리고 함축적으로 미래의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포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지혜의 여인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론, 또는 그것이 예수와 전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지점에서 유명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질문을 잘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제 주석과 아마도 향후 강의를 언급하여 결국 교부들로부터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독서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현대 성경 학문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이 본문에 있는 신비가 당시 인간 저자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기 위해 성령께서 지혜의 의인화를 가리셨다고 생각할 몇 가지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혜의 출현은 9장에서 절정의 초대를 예고하고, 그 후 이 지혜가 10장부터 29장까지 모아지고 구체화되며, 31장의 여인에게서 또 다른 절정의 형태, 즉 지혜의 지속적인 의인화를 취하게 되는데, 내 생각에 이것은 단지 신성한 속성이나 수집된 단어 집합 이상의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8장에 나오는 창조 행위에 지혜가 있다는 것은 비인격적인 신성한 속성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잠언 8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힌트가 있습니다. 31절을 참고하세요.

이 구절은 인류가 하나님의 기쁨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름인 야훼가 8장 22절의 첫 번째 단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1절의 마지막 단어는 인류인 아담입니다. 두 번째 11개의 스테이크 이전에, 이 부분의 창조자인 지혜, 22절부터 31절까지, 창조적 중재자인 창조자는 27절에서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야훼가 있었고 마지막에 아담이 있었고 그 중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있었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암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9장은 지혜의 여인(Lady Wisdom)의 매력적인 초대에 이어 그녀와 Dame Folly의 최종 제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이전 장에서 신중하게 조정된 것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제 9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지혜는 가족의 안정이라는 지속적인 주제와 연결되는 은유로서 그녀의 집 식탁에 자리를 제공합니다. 일곱 개의 기둥은 집이 완벽하게 건축되었으며, 보기에 좋고 안전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숫자 7은 본문의 요소가 상징적 레지스터에서 작동함을 나타냅니다. 지혜의 건축 프로젝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3절에서처럼 높은 성전에서 단순히 부르짖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은 집, 성전 너머, 도시, 심지어 가정까지 거룩함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육신은 궁극적으로 우리 일상 생활에서 지혜의 신성한 겸손의 정도를 적절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지혜의 여인은 고귀하지만 단순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고, 식탁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놀랍도록 초대하시는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7-12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단순히 모욕합니다. 기대되는 결과, 장수 또는 고통은 두 가지 다른 길에서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따릅니다.

Folly는 13-18절에서 반대 제안을 합니다. 그녀 역시 집을 갖고 있으며, 그녀는 자신의 높은 곳에서 오는 지혜의 초대를 흉내냅니다. 우리가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상 숭배의 유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련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따르나니 곧 자기의 길을 곧게 하는 자에게도니라(15절)

Folly는 기만적입니다. 죽은 손님을 집 안에 숨기고 가장자리에서의 삶의 관능적인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그녀가 금단의 열매에 호소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름을 덮으려는 시도이며 실제로는 14절 주위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지혜는 스스로 보상을 약속할 수 있는 반면, 11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파괴적인 현자는 18절에서 그녀를 위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은 여행의 정점에서 축제 식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창조주를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와 언약 공동체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면서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의 논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잠언 9장에 나오는 가정의 비유는 매우 적절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호스트의 위대함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에 대한 깊은 특권감을 전달합니다.

식탁이 차려지고 우리는 그녀의 집 근처에서 부모의 길에 머물면서 신성한 지혜를 받아들이고 궁극적인 잔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잠언에 대한 강의에서 Dr. Daniel J. Treier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세션, 잠언 1-9장, 두 가지 길입니다.